Issue Commen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5년 7월 16일

GE버노바(GEV.US)
시장 TP 508.88 USD I CP 561.17 USD

콘스텔레이션에너지(CEG.US)
시장 TP 321.58 USD I CP 308.20 USD

뉴스케일파워(SMR.US)
시장 TP 34.28 USD I CP 37.48 USD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2025년 7월 17일 I 글로벌 산업 분석

글로벌 전력기기

920억달러 AI·에너지 투자

에너지 및 혁신 정상회의와 제 2의 스타게이트

카네기멜론대학교는 피츠버그에서 제 1회 '펜실베니아 에너지 & 혁신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에너지 및 테크 기업들이 다수 참가했으며 규모는 총 920억 달러로 당초 예상하던 규모(700억 달러)를 상회했다. 360억 달러가 AI 데이터센터 신규 프로젝트에, 560억 달러가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될 계획이다.

올해 1월 트럼프는 취임 직후 5,000억 달러 규모의 '스타게이트 AI 인프라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초기에 1,000억 달러의 민간 자금을 조성한 이후에 4년간 4,000억 달러를 추가한다는 목표다. 현재 프로젝트 일환으로 텍사스 애빌린에서 오픈AI 전용 데이터센터에 400억 달러가 투자됐으며 7월 2일에는 오픈 AI가 오라클로부터 4.5GW, 300억 달러 규모 데이터센터를 추가로 임차했다. 높은 목표(5,000억 달러) 대비 자금 조달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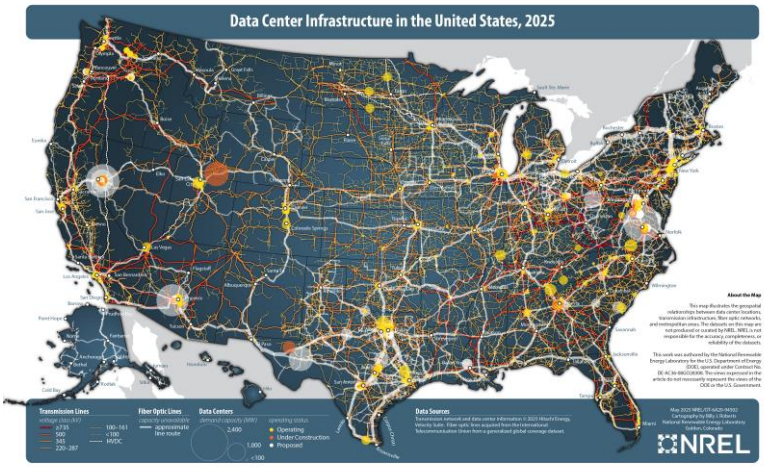
펜실베니아: 애팔래치아 분지와 PJM의 공통분모

펜실베니아는 대표적인 러스트벨트 지역으로 1) 미국 최대 가스 생산지인 애팔래치아 분지(펜실베니아, 오하이오, 웨스트버지니아), 2) 미국 최대 전력시장인 PJM 인터커넥션(펜실베니아, 뉴저지, 메릴랜드)에 모두 포함돼 미국 내 AI·에너지를 고려할 때 지정학적 중요도가 높다. 과거 철강 산업의 중심지였던 피츠버그 도시들은 넓은 부지를 활용해 대규모 AI 서버 구축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구글과 브룩필드자산운용은 펜실베니아주 2개의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20년간 30억 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의 일환으로 수력발전소 업그레이드와 재허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GEV 가스터빈 7기 계약, CEG 폐원전 재가동 가속화 계획 공개

GE버노바(GEV)는 고전압 스위치기어 증설을 위해 펜실베니아 Charleroi 공장에 6.8억 달러를 투자하고 1,75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호머시티에 위치한 대규모 데이터센터 부지에는 7개의 천연가스터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호머시티 에너지 캠퍼스는 AI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 기존 펜실베니아 최대 규모의 석탄 화력 발전소를 천연가스 기반 데이터센터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2027년 완공 예정이다. **콘스텔레이션에너지(CEG)**는 펜실베니아 전력망에 835MW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전망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전력 공급을 위해 2024년 9월 체결한 폐원전 재가동 프로젝트(Crane Clean Energy Center)는 2028년 재가동을 목표로 했으나 1년 앞당겨 2027년으로 발표했다. **웨스팅하우스(비상장)** 역시 회의에 참여해 2030년까지 대형 원자력 발전소 10기를 건설하는 계획을 새로 발표했다. 건설 지연이 자주 발생함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목표는 아니라고 판단하나 7월 16일 DOE의 고급 원자로 개발 가속화 및 국산 핵연료 공급망 강화 파일럿프로그램 등 대형원전과 SMR 모두 지원책이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도표 1. 미국 데이터센터 인프라 지도



자료: NREL,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시현)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5년 7월 17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시현)는 2025년 7월 17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